

기후분석정보



1월 우리나라 기후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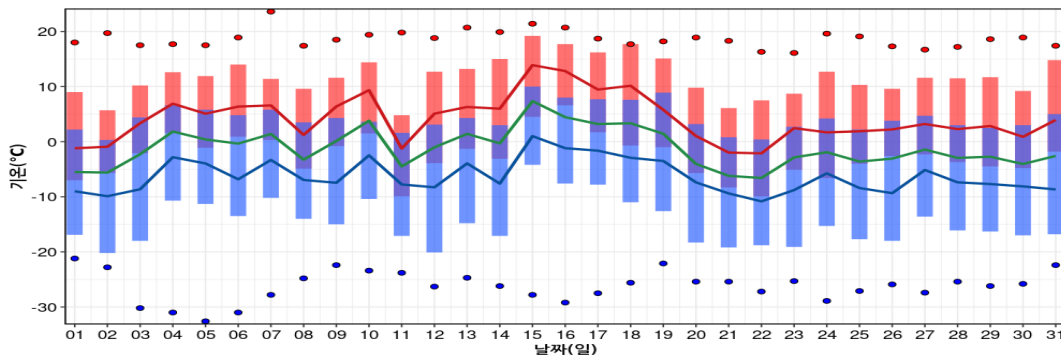
요약

음의 북극진동과 베링해 블로킹 영향으로 하순 강추위 지속되었던 1월

- 평균기온 -1.6°C 로 평년(-0.9°C)보다 0.7°C 낮아, 2018년 이후 8년 만의 평년보다 낮은 1월 기온
- 큰 기온 변동(상순 평년 수준 \rightarrow 15~18일에 반짝 고온 \rightarrow 20일부터 추위 지속)
- 강수량 4.3mm 로 평년(26.2mm) 대비 19.6% 수준(하위 2위), 상대습도 53% 로 역대 가장 낮아

기온

1월 기온 시계열



▶ 최고기온
▶ 평균기온
▶ 최저기온

▶ 막대: 전국 기온 범위
▶ 실선: 전국 평균
▶ 점: 1973년 이래 극값

※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관측자료 활용, (1973~1989년)전국 56개+제주 2개, (1990~2025년)전국 62개+제주 4개

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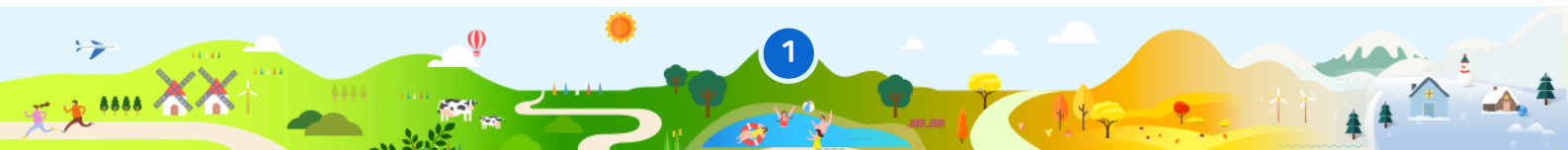
- 전국 평균기온은 -1.6°C 로 평년보다 0.7°C 낮았습니다. 1~3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졌으나 이후 상순 동안은 대체로 평년 수준이었고, 15~18일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하층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, 하순 기간 북극의 찬 공기가 유입되며 강한 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었습니다.

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(1973년 이후 전국평균)

구분	2026년 1월			
	평균값 ($^{\circ}\text{C}$)	평년값 ($^{\circ}\text{C}$)	평년편차 ($^{\circ}\text{C}$)	순위(하위)
평균기온	-1.6	-0.9	-0.7	17위
평균 최고기온	3.8	4.4	-0.6	19위
평균 최저기온	-6.8	-5.7	-1.1	13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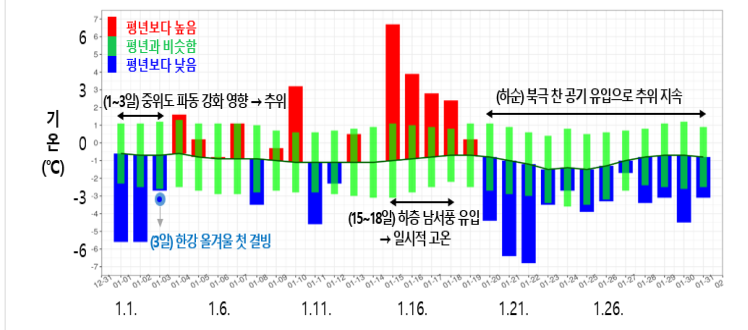
※ 전국평균: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(1973~1989년) 56개 지점, (1990~2026년) 62개 지점)

※ 평년값: 1991~2020년 적용



기온 특성 및 원인

1월 일별 전국 평균기온 시계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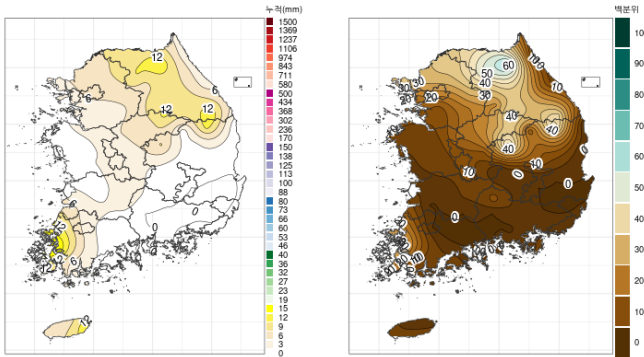


원인

- (1~3일) 그린란드 부근의 북대서양에서부터의 대기 파동 강화로 상층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
- (15~18일) 대기 파동 강화가 해소되고 기압계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하층에 남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.
- (하순) 음의 북극진동과 관련한 북극 찬 공기의 중위도 남하, 동시베리아~베링해 블로킹 발달 등으로 인해 상층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추위가 지속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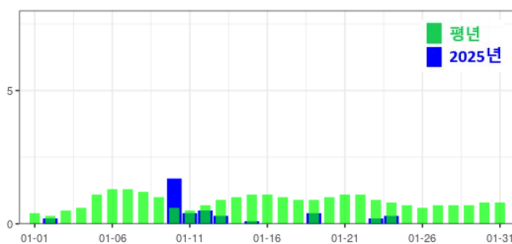
강수량

2026년 1월 전국 강수량(mm)과 퍼센타일(%ile)



※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

2026년 1월 전국 강수량 시계열(mm)



※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

현황

- 1월 전국 강수량은 4.3mm로 평년(26.2mm)의 19.6%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적었고, 강수일수는 3.7일로 평년보다 2.8일 적었습니다(하위 4위). 전국 상대습도도 53%로 역대 가장 낮았고 건조한 경향이 이어졌습니다.

원인

- 상층 찬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자주 발달하여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평년 대비 더 강하게 불면서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적었습니다.

강수량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(1973년 이후 전국평균)

구분	2026년 1월		
	값	퍼센타일(강수량)/평년편차(강수일수)	순위(하위)
강수량	4.3mm	0%ile	2위
강수일수	3.7일	-2.8일	4위

※ 전국평균: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(1973~1989년) 56개 지점, (1990~2026년) 62개 지점)

※ 평년값: 1991~2020년 적용



이상고온 및 기상가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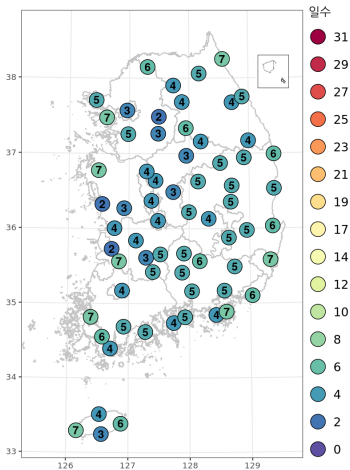
이상고온·저온 발생일수

▶ **이상고온(저온) 발생일수:** 이상고온(저온)은 평년(1991~2020년)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·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(10퍼센타일 미만)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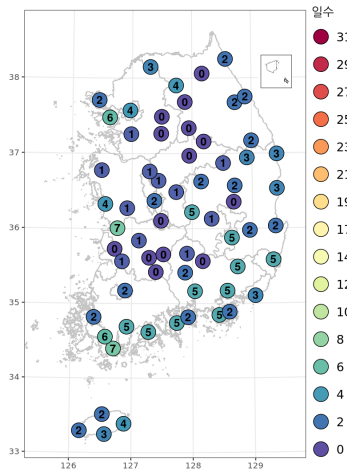
※ 퍼센타일: 평년(1991~2020년) 같은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



최고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(일)



최저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(일)



• **최고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 일수: 4.7일(작년 2.1일)**

• 주요지점 발생일수: 속초 7일, 인천 7일, 서산 7일, 울산 7일, 목포 7일, 고산 7일, 정읍 7일, 거제 7일, 철원 6일, 원주 6일

• **최저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 일수: 2.3일(작년 1.7일)**

• 주요지점 발생일수: 군산 7일, 완도 7일, 인천 6일, 해남 6일, 추풍령 5일, 대구, 5일, 울산, 5일, 창원 5일, 통영 5일, 여수 5일

* 평균방법: 각 지점별 이상기온 발생일수 산출 후 62개 지점 평균

기상가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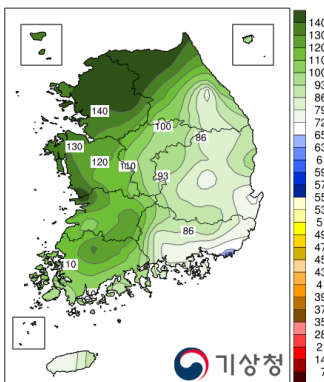
▶ **기상가뭄:** 최근 6개월('25.8.1.~'26.1.31.) 누적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은 현상

▶ **기상가뭄 판단 기준:** 최근 6개월 강수량(표준강수지수*)에 따라 약한-보통-심한-극심한 가뭄인 4단계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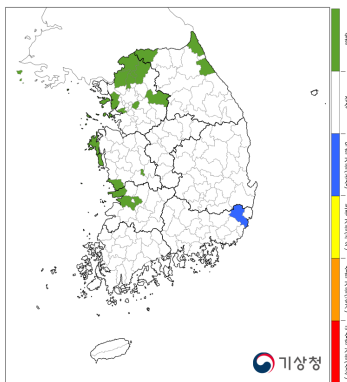
*표준강수지수(기상청): 최근 누적강수량과 과거(1973년~전년)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

*습함(1.0 이상), 정상(0.99~0.99), 약한 가뭄(-1.00~1.49), 보통 가뭄(-1.50~1.99), 심한 가뭄(-2.0 이하), 극심한 가뭄(-2.0 이하 20일 이상)

강수평년비(%)



가뭄 현황



• **6개월('25.8.1.~'26.1.31.) 누적강수량:**

- 전국 누적 강수량 637.7mm로 평년(602.8mm) 대비 105.9%입니다.

※ 전국 평년비: 제주(4개 지점)를 제외한 62개 지점의 평년비를 평균한 값

• **가뭄 현황(1.31. 기준):**

- 울주군에 기상가뭄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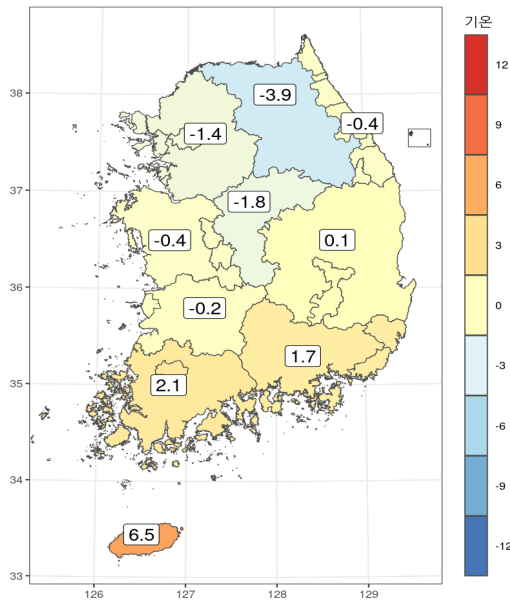


주요 기후요소 비교 - 기온·강수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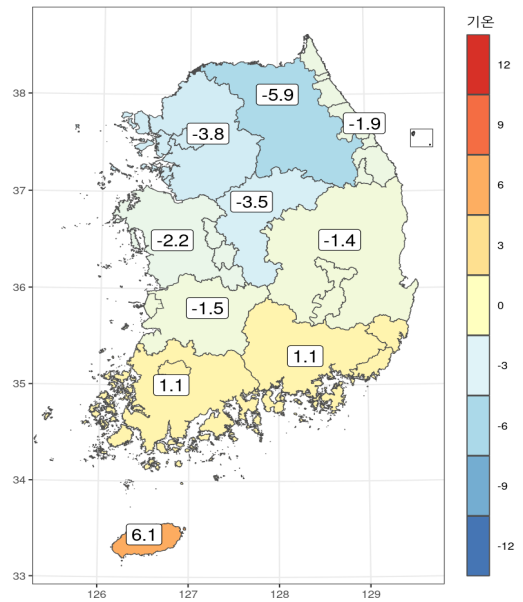
작년 비교

- 1월 전국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1.4℃ 낮았고, 강수량은 작년보다 12.5mm 적었습니다.
- [기온] 올해(-1.6℃) vs 작년(-0.2℃)
전국적으로 기온이 작년보다 낮았고, 작년 대비 -2.4~-0.4℃ 분포를 보였습니다.
- [강수] 올해(4.3mm) vs 작년(16.8mm)
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작년보다 적었고, 작년 대비 -35.9~-3.6mm 분포를 보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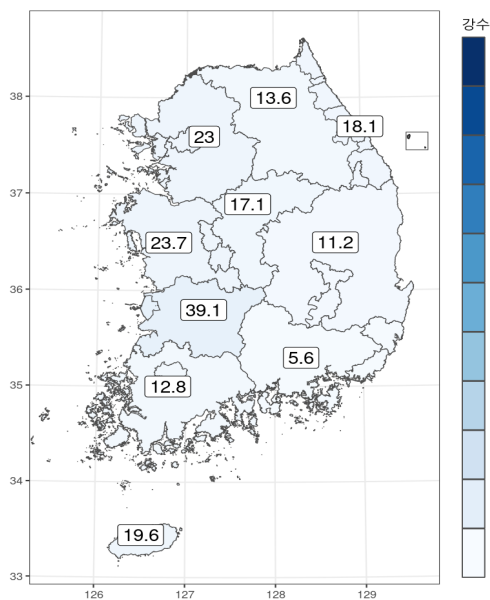
2025년 1월 평균기온(℃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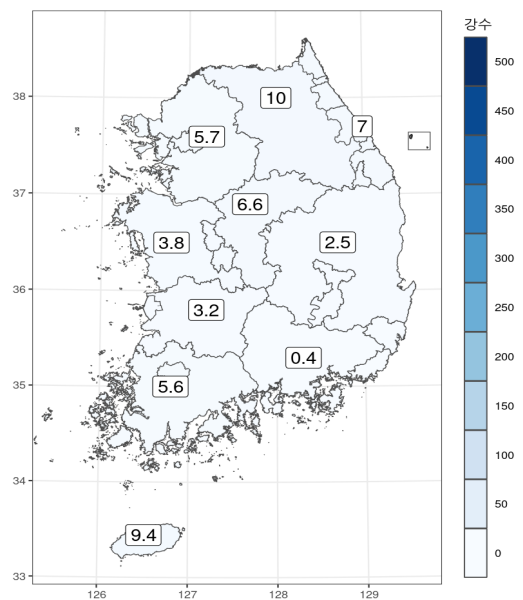
2026년 1월 평균기온(℃)



2025년 1월 강수량(mm)



2026년 1월 강수량(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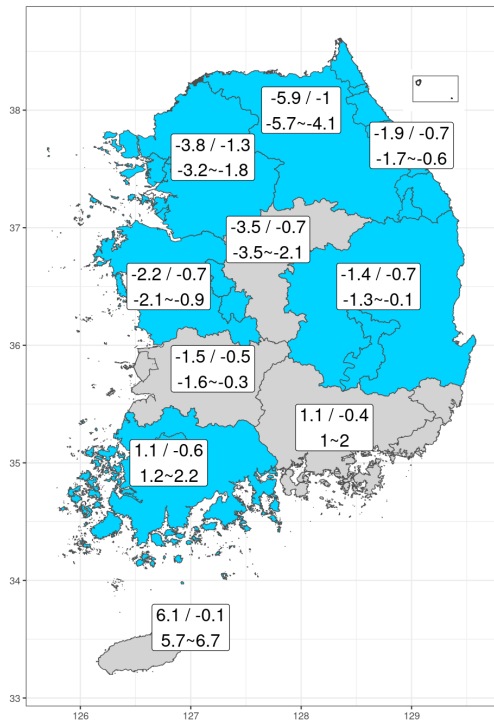


※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제주 평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)

평년 비교

- 1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0.7℃ 낮았고,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.
- (기온) 전국 평균기온은 -1.6℃로 평년(-1.5~-0.3℃)보다 낮았으며, 수도권,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 지역은 평년보다 낮았고, 그 외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였습니다.
- (강수량) 전국 강수량은 4.3mm로 평년(17.4~26.8mm)보다 적었으며,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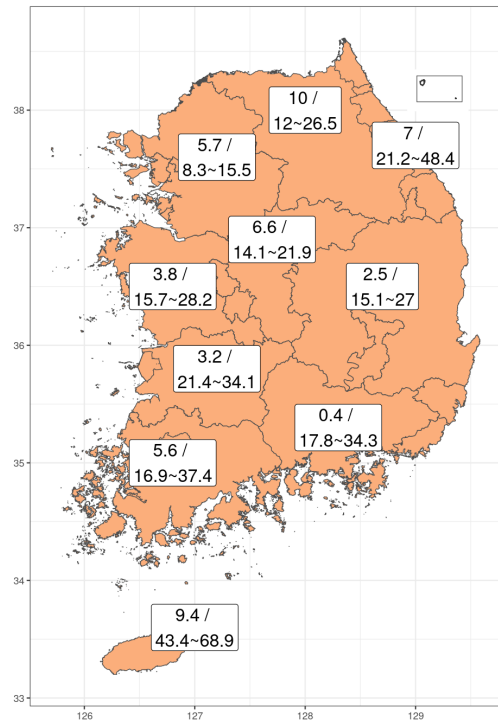
평균기온(℃)



낮음 비슷 높음

※ 네모 박스 위: 월 평균값(℃)/편차(℃),
아래: 평년(1991~2020년) 비슷범위(℃)

강수량(mm)



적음 비슷 많음

※ 네모 박스 위: 월 누적값(mm),
아래: 평년(1991~2020년) 비슷범위(mm)

※ 평년비슷범위: 과거 30년(1991~2020년)간 연도별 30개의
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.33%~66.67%에 해당하는 값

상한 하한
평균기온의 평년값
강수량의 증감값

우리나라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와 순위 (2025년 2월 ~ 2026년 1월)

년/월	2025년											2026년	기준
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
월평균(℃)	-0.5	7.6	13.1	16.8	22.9	27.1	27.1	23.0	16.6	8.5	2.4	-1.6	
평년편차(℃)	-1.7	+1.5	+1.0	-0.5	+1.5	+2.5	+2.0	+2.5	+2.3	+0.9	+1.3	-0.7	평년(1991 ~ 2020년)
순위(상위)	37	7	10	33	1	2	2	2	1	11	10	37	1973 ~ 2026년

※ 전국평균 및 순위: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(1973~1989년) 56개 지점, (1990~2026년) 62개 지점)



주요 기후요소 비교- 강수·눈일수

작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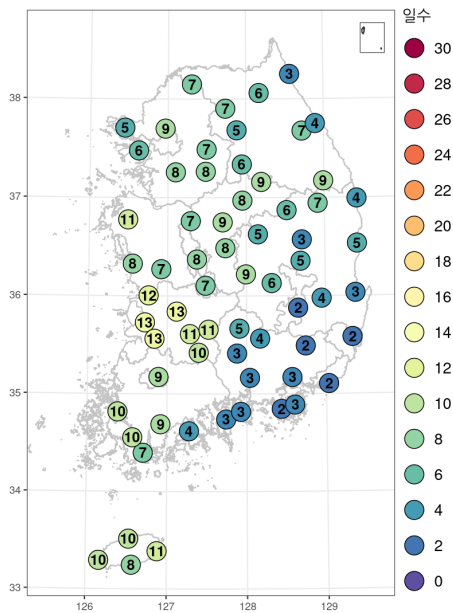
· [강수일수] 올해(3.7일) vs 작년(6.5일)

강원 일부 지역(홍천, 인제, 철원, 강릉)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(평년 6.5일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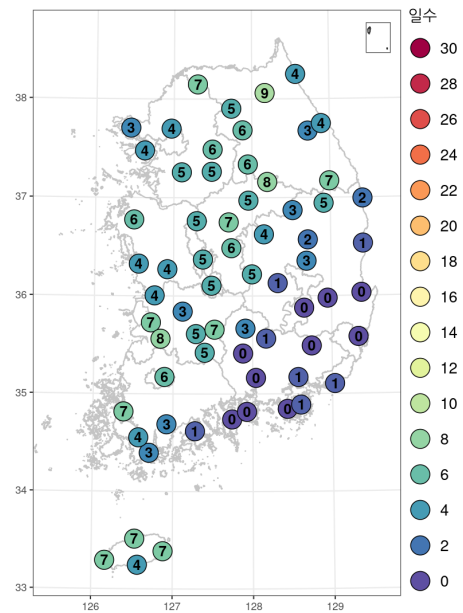
· [눈일수] 올해(6.6일) vs 작년(9.7일)

전국 대부분 지역(울산 제외)에서 눈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(평년 6.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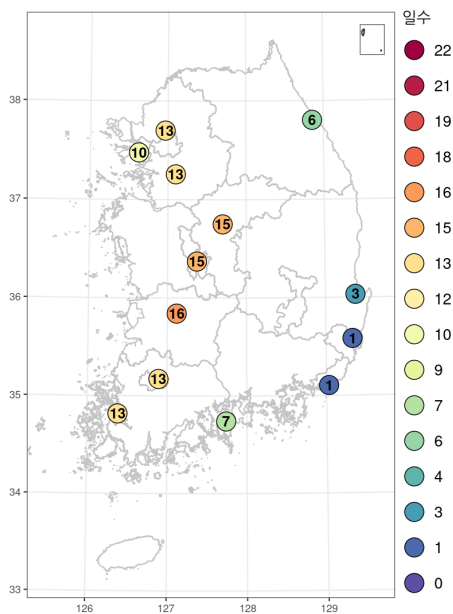
2025년 1월 강수일수(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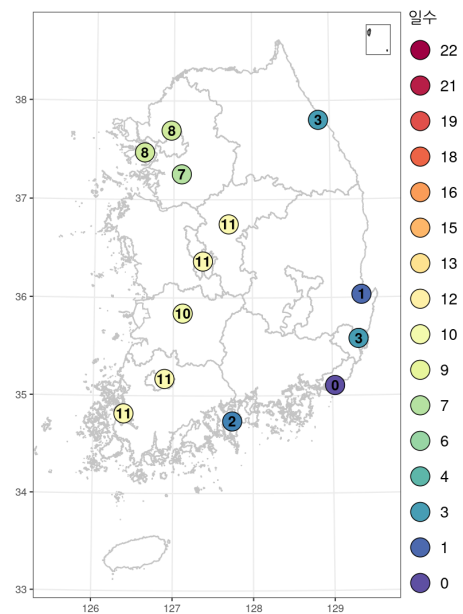
2026년 1월 강수일수(일)



2025년 1월 눈일수(일)



2026년 1월 눈일수(일)



※ 강수일수: 일강수량이 0.1mm 이상인 날의 일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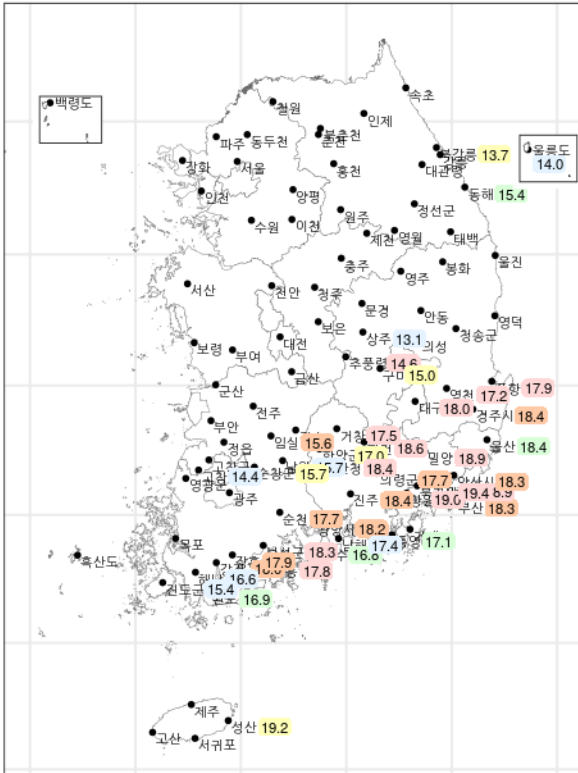
※ 눈일수: 눈, 소낙눈, 가루눈, 눈보라, 소낙성진눈깨비, 진눈깨비, 싸락눈 중 어느 하나가 관측된 일수

주요 기후요소 비교- 극값

우리나라 극값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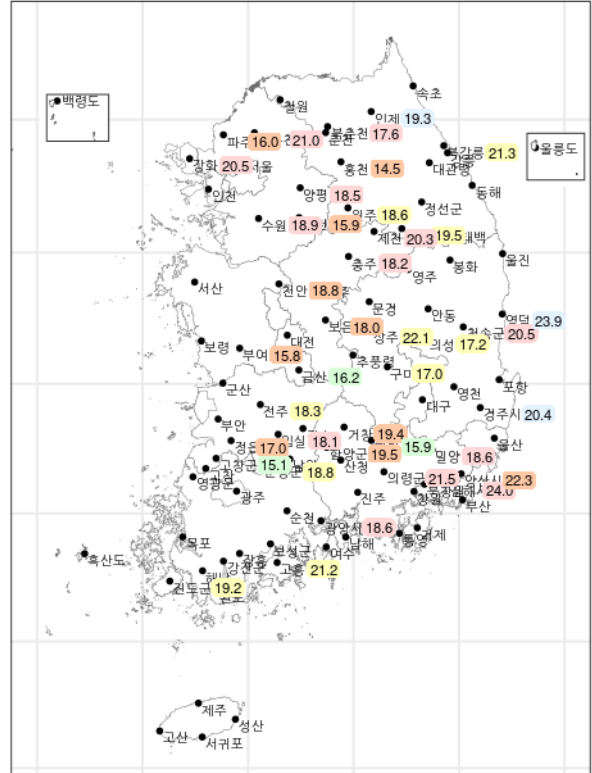
- [기온] 1월 중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, 일 최고기온 최고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있습니다.
- [풍속] 평년 대비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일최대순간풍속 최대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많습니다.

월최고기온 최고(℃)



- 1위: 북창원(19.4℃), 창원(19℃), 김해시(18.9℃), 밀양(18.9℃), 합천(18.6℃), 산청(18.4℃), 보성군(18.3℃), 대구(18℃), 포항(17.9℃), 고흥(17.8℃), 거창(17.5℃), 영천(17.2℃), 추풍령(14.6℃)
- 2위: 진주(18.4℃), 경주시(18.4℃), 부산(18.3℃), 양산시(18.3℃), 광양시(18.2℃), 강진군(18℃), 장흥(17.9℃), 순천(17.7℃), 의령군(17.7℃), 임실(15.6℃)
- 3위: 성산(19.2℃), 함양군(17℃), 순창군(협력)(15.7℃), 구미(15℃), 북강릉(13.7℃)
- 4위: 울산(18.4℃), 통영(17.1℃), 완도(16.9℃), 여수(16.8℃), 동해(15.4℃)
- 5위: 남해(17.4℃), 해남(16.6℃), 남원(15.7℃), 진도군(15.4℃), 고창(14.4℃), 울릉도(14℃), 상주(13.1℃)

일최대순간풍속 최대(m/s)



- 1위: 김해시(24m/s), 의령군(21.5m/s), 동두천(21m/s), 강화(20.5m/s), 청송군(20.5m/s), 제천(20.3m/s), 수원(18.9m/s), 광양시(18.6m/s), 밀양(18.6m/s), 양평(18.5m/s), 충주(18.2m/s), 임실(18.1m/s), 북춘천(17.6m/s)
- 2위: 양산시(22.3m/s), 함양군(19.5m/s), 거창(19.4m/s), 천안(18.8m/s), 보은(18m/s), 정읍(17m/s), 파주(16m/s), 이천(15.9m/s), 부여(15.8m/s), 홍천(14.5m/s)
- 3위: 상주(22.1m/s), 북강릉(21.3m/s), 고흥(21.2m/s), 영월(19.5m/s), 진도군(19.2m/s), 순창군(협력)(18.8m/s), 원주(18.6m/s), 전주(18.3m/s), 의성(17.2m/s), 구미(17m/s)
- 4위: 금산(16.2m/s), 합천(15.9m/s), 고창군(15.1m/s)
- 5위: 영덕(23.9m/s), 경주시(20.4m/s), 인제(19.3m/s)

※ 각 지점별 관측개시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한 93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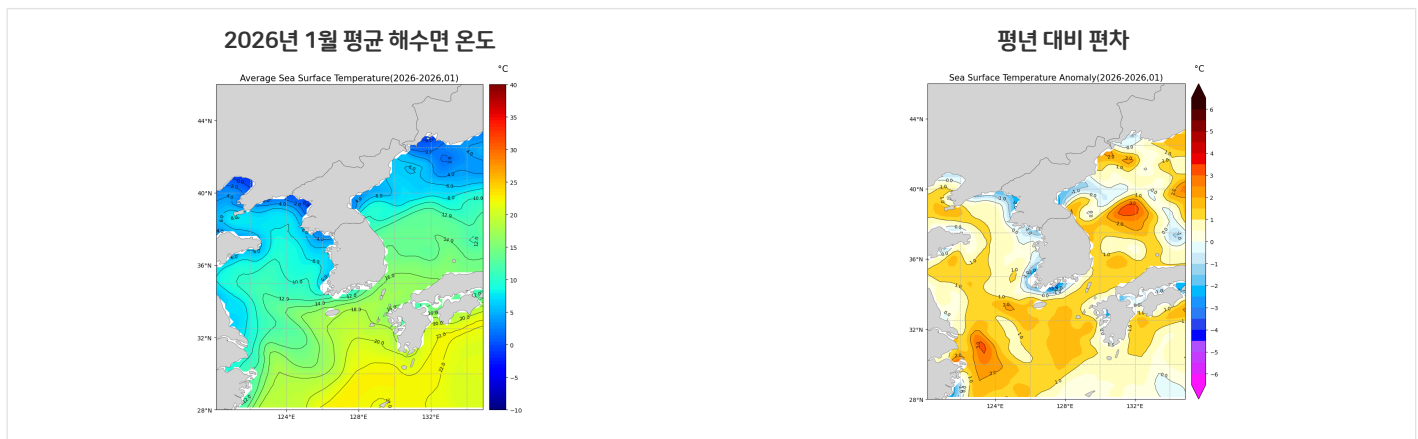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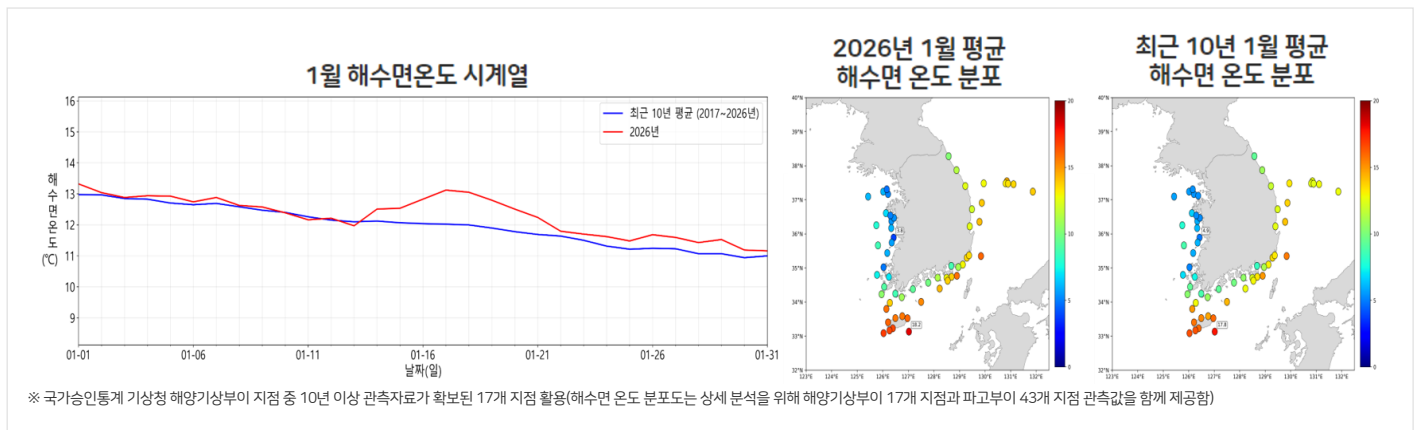


1월 해양 기후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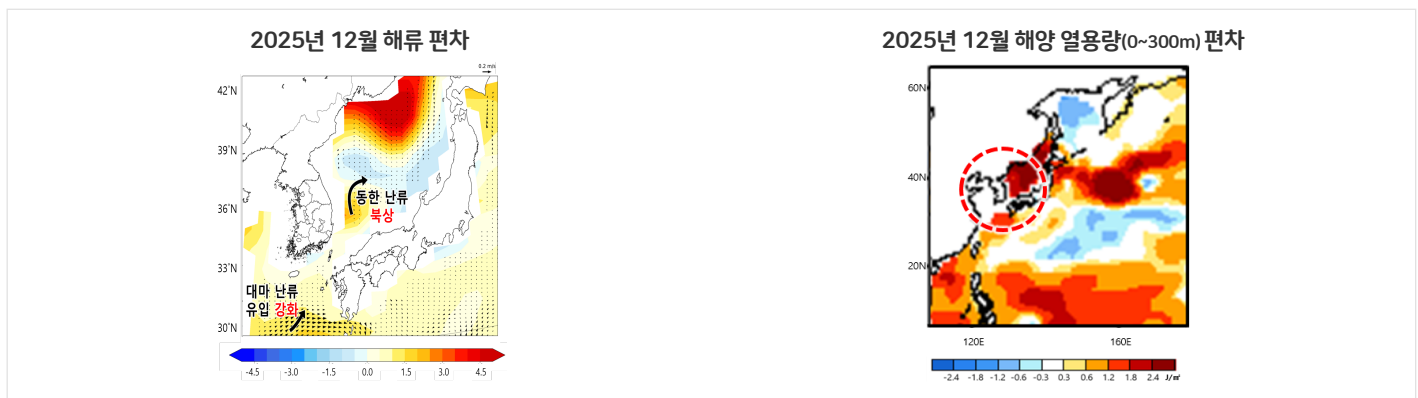
한반도 해수면온도

- **[관측자료]** 1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12.4°C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해역별로 남해, 동해는 각각 16.0°C, 14.1°C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.7°C, 0.2°C 높았으나, 서해는 7.1°C로 최근 10년 평균과 같았습니다.
- 지난 1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 열용량*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,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강한 상태가 지속되어 남해와 동해의 해수면 온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. 1월 하순 북극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평균 수준으로 하강하였습니다.
* 해양 열용량: 일정 수심 범위의 바닷물이 저장하고 있는 열의 총량으로,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음
- **[재분석자료]** 서남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였습니다.

관측자료



재분석자료



※ 자료출처: NOAA OISSTv2 (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, 최적 내삽(버전2)된 해수면 온도), NCEP GODAS(해류, 해양 열용량) 재분석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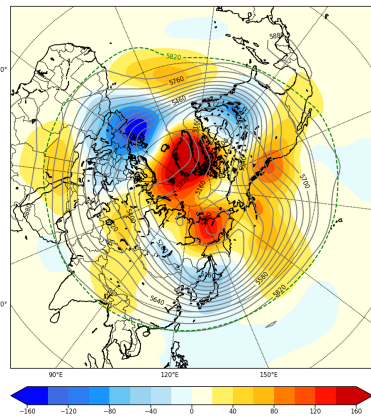
기후학적 원인분석

전 지구 순환장

- **[500hPa 지위고도]** 그린란드, 북유럽, 서시베리아, 동시베리아, 베링해 부근, 캐나다 서부, 미국 서부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지위고도가 나타났고, 유럽, 우리나라, 일본, 캐나다 동부, 미국 동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가 나타났습니다.
- **[해면기압]** 그린란드, 북유럽, 서~중시베리아, 베링해 부근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면기압이 나타났고, 유럽, 일본, 캐나다 동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이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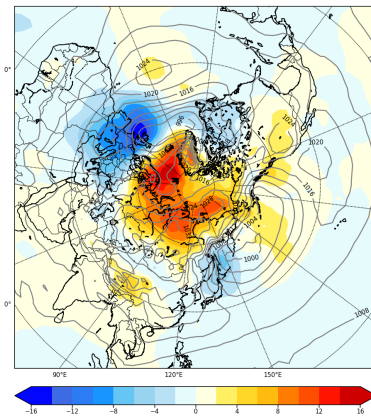
※ 지위고도: 지면에서 특정 기압이 되는 높이로 지위고도가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, 낮으면 저기압을 의미

500hPa 지위고도(m)



- ▶ 채색: (빨강)평년(1991~2020년)보다 높은 지위고도, (파랑)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
- ▶ 실선: (검정)1월 평균 지위고도, (초록)1월 평년 지위고도

해면기압(hP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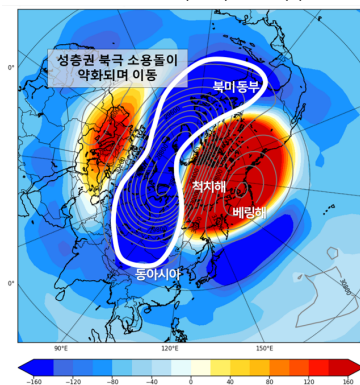


- ▶ 채색: (빨강)평년(1991~2020년)보다 높은 해면기압, (파랑)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
- ▶ 실선: (검정)1월 평균 해면기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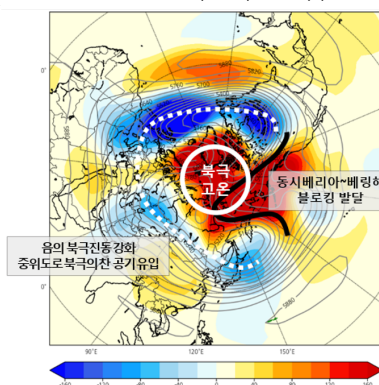
※ 자료출처: 미국 환경예측센터 NCEP(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) 재분석자료

성층권 북극 소용돌이 약화

1월 12~18일 성층권(10hPa) 지위고도(m)



1월 20~27일 상층(500hPa) 지위고도(m)



• [성층권 북극 소용돌이 약화]

: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*의 약화가 음의 북극진동과 베링해 부근의 블로킹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극 지역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, 이러한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의 약화는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유입되기 좋은 조건을 형성하며 음의 북극진동을 강화하고, 베링해 부근에 블로킹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이러한 기압계 패턴 특성과 관련하여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, 유럽, 러시아 캄차카반도, 북미 등 북반구 중위도 전역에서 한파가 발생하였습니다.

* 북극 소용돌이: 겨울철 성층권 북극에 형성되는 거대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로 편서풍 띠 형태를 보이며,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북극에 가두는 역할, 북극 소용돌이가 약해지거나 이동하거나 나뉘는 경우 성층권 온도가 급상승하고 대류권 순환에도 영향을 주어 극 제트기류도 약해져 차가운 북극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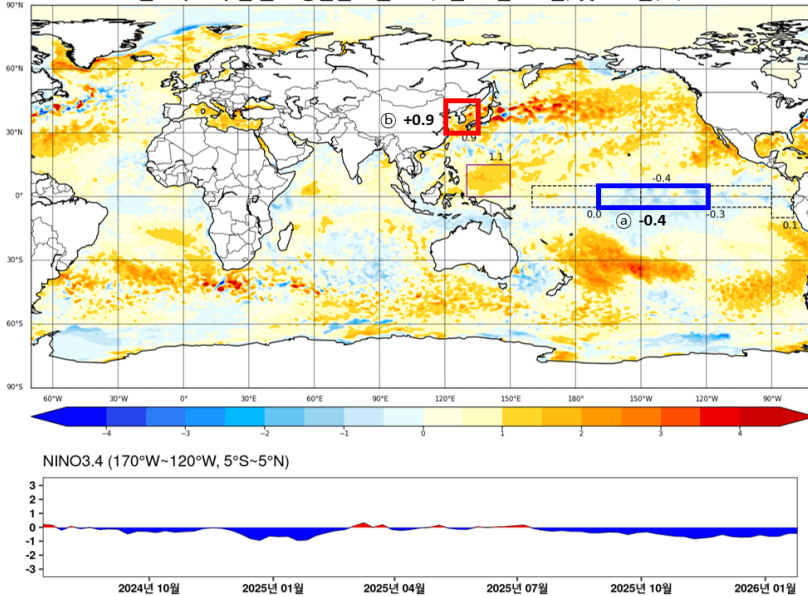
기후 감시 정보

해수면 온도

▶ 우리나라 엘니뇨(라니냐) 정의:

엘니뇨·라니냐 감시구역(열대 태평양 Nino3.4 지역: 5°S~5°N, 170°W~120°W)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의 평년편차가 +0.5°C 이상(-0.5°C 이하)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(라니냐)의 시작으로 봄

전 지구 해수면 온도 평년편차 분포도(1월 25일~31일) 및 시계열(°C)



㉔엘니뇨·라니냐 감시구역: 5°S~5°N, 170°W~120°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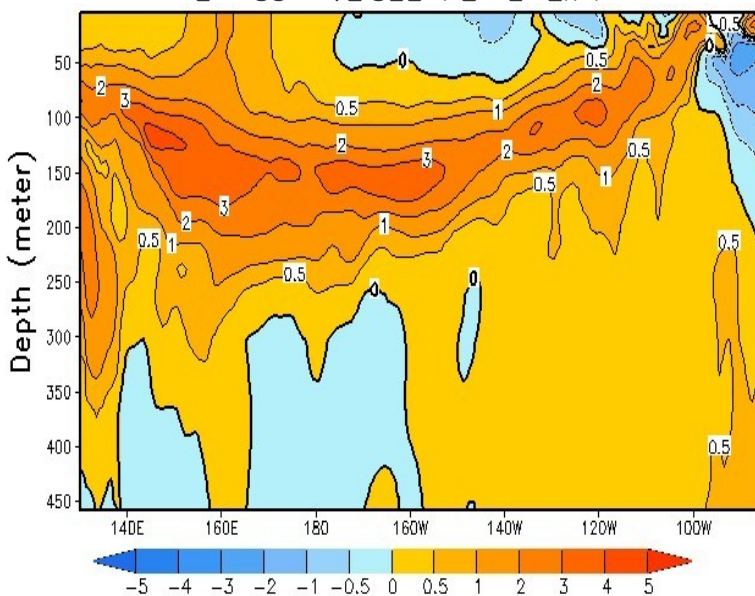
㉕우리나라 주변: 30°N~45°N, 120°E~135°E

※ 자료출처: NOAA OISSTv2(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, 최적 내삽(버전2)된 해수면 온도)

• [전 지구 해수면 온도]

: 최근 해수면 온도는 열대 태평양 엘니뇨·라니냐 감시구역(㉔)에서 평균 26.1°C로 평년보다 0.4°C 낮았고, 우리나라 주변(㉕)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11.3°C로 평년보다 0.9°C 높았습니다.

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평년편차(1월 29일 기준)(°C)



※ 평년보다 높은 수온(빨강)/평년보다 낮은 수온(파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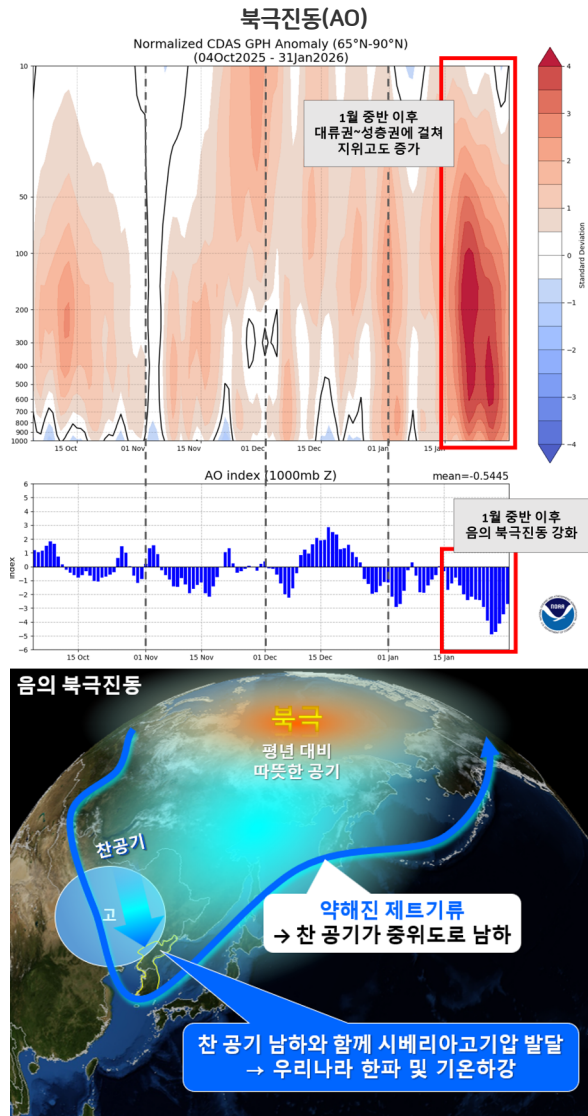
※ 자료출처: NOAA/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/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(www.pmel.noaa.gov/tao)

• [열대 태평양 해저수온]

: 1월 29일 기준, 중태평양 표층(50m 내)과 수심 200m 이내 동태평양(100°W~90°W)에서는 -3.0~-0.5°C의 음의 해저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고, 그 외 수심 300m 이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0.5~3.0°C로 양의 해저 수온편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기후 감시 정보

계절 감시 및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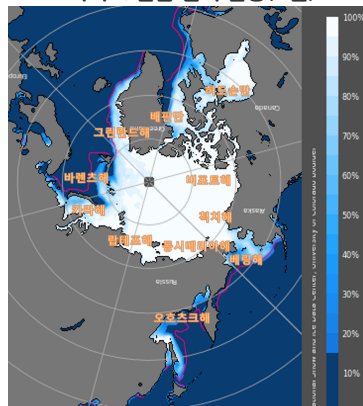


· [북극진동(AO)]

: 1월 하순 음의 북극진동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면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고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된 기압계 상황에서, 우리나라는 베링해 블로킹에 막혀 상층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하순 동안 추위가 이어졌습니다.

※ 북극진동(AO):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으로 양(음)의 북극진동일 때는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남하하기 어려움(쉬움)

북극해 얼음 면적 현황(1월)



▶ 실선: (분홍색) 북극해 얼음 평년(1981~2010년) 면적
※ 자료출처: 미국 설빙데이터센터(NSIDC)

· [북극해 얼음]

: 북극해 얼음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라-바렌츠해에서 평년보다 적은 분포를 보였습니다. 베링해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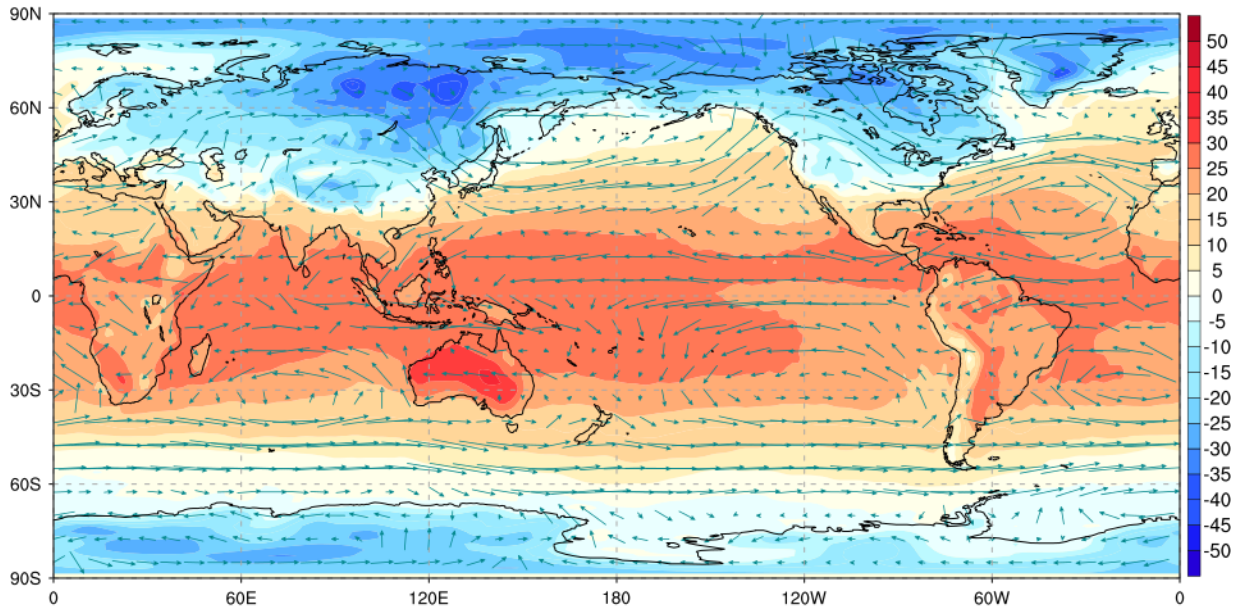
※ 카라-바렌츠해 해빙이 적은 경우 우랄산맥 부근에서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동아시아에 한파를 유도할 수 있음



전 세계 기온

- 전 세계적으로 1월 평균기온은 12.8°C였으며, 평년(12.5°C) 대비 0.3°C 높았습니다.
- [평년 대비 높은 지역] 동시베리아, 아프리카 북서부, 칠레, 그린란드, 호주
- [평년 대비 낮은 지역] 유럽, 중동, 서~중앙시베리아, 알래스카, 미국 동부, 호주 북동부, 남아메리카 남부

a) 평균기온(°C)



b) 평균기온 평년편차(°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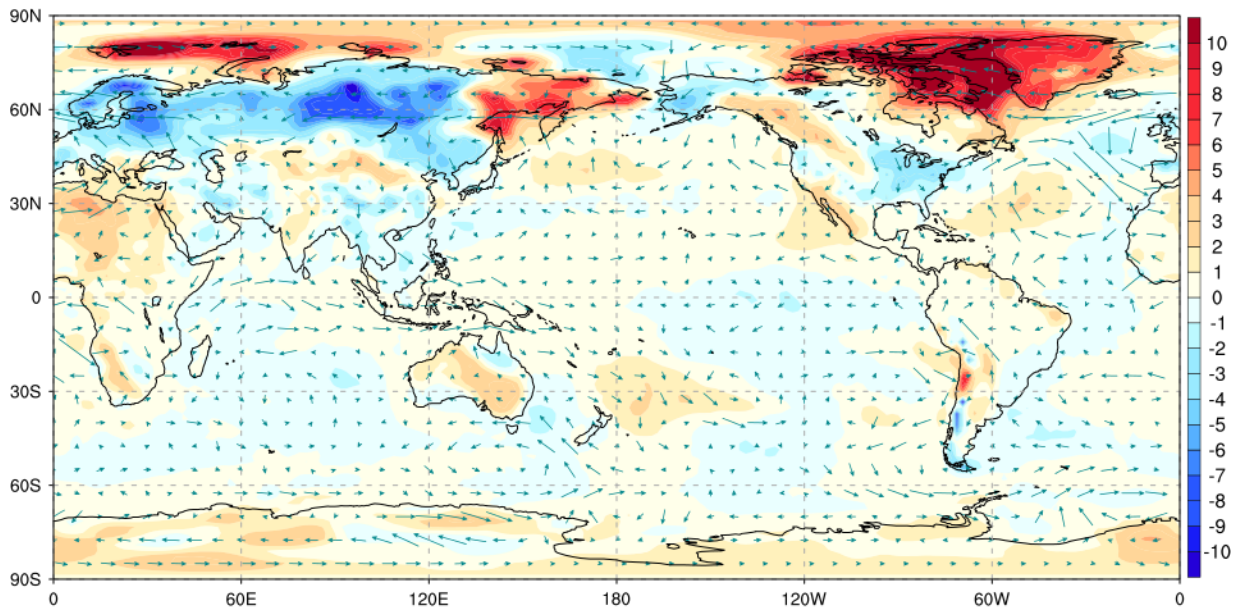


그림 a) ▶ 채색: (빨강) 0°C 이상의 평균기온, (파랑) 0°C 미만의 평균기온, 화살표: (청록색) 850hPa 평균바람

그림 b) ▶ 채색: (빨강) 평년보다 높은 기온, (파랑) 평년보다 낮은 기온, 화살표: (청록색) 850hPa 평균바람 평년편차

그림 b) 평균기온 평년편차(°C): 2026년 1월 평균기온 - 평년(1991~2020년) 1월 평균기온

※ 자료출처: 미국 환경예측센터(NCEP,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) 재분석자료(2m 평균기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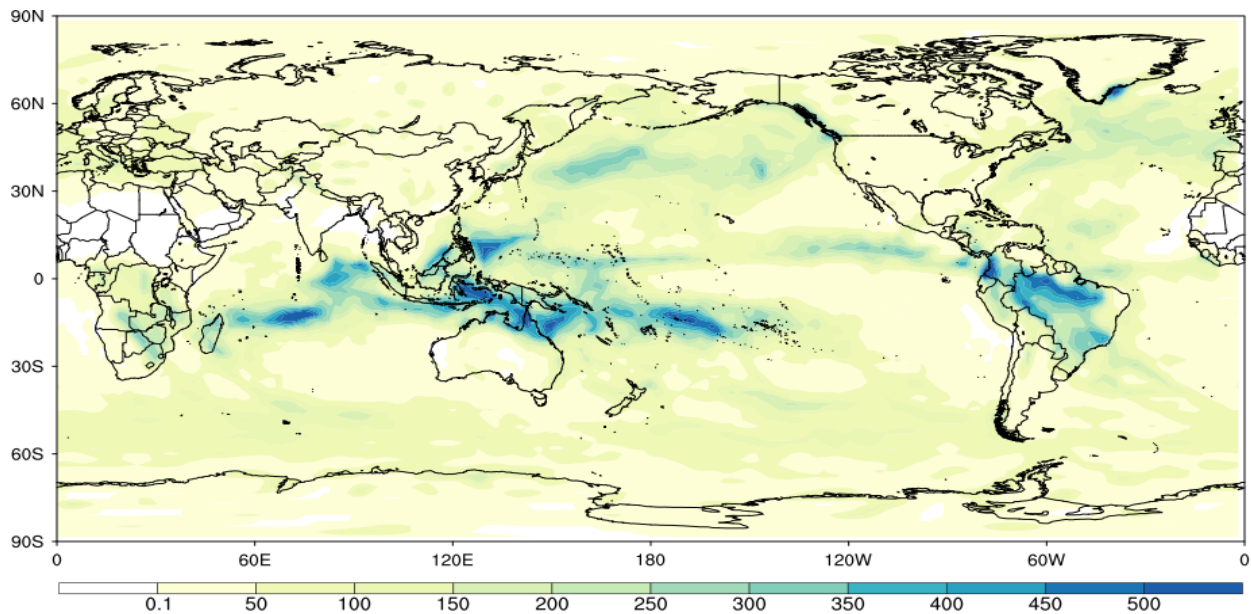
※ 전 세계 평균기온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전 세계 강수량

- 전 세계적으로 1월 누적강수량은 83.5mm 였으며, 평년(86.5mm)수준 이었습니다.
- [평년 대비 많은 지역] 남~동유럽, 중국 북부, 필리핀, 호주 북동부, 캐나다, 남아메리카 북서부
- [평년 대비 적은 지역] 북유럽, 태국, 중국 남동부, 말레이시아, 일본, 호주 남부, 남아메리카 남부

a)강수량(mm)



b)강수량 평년편차(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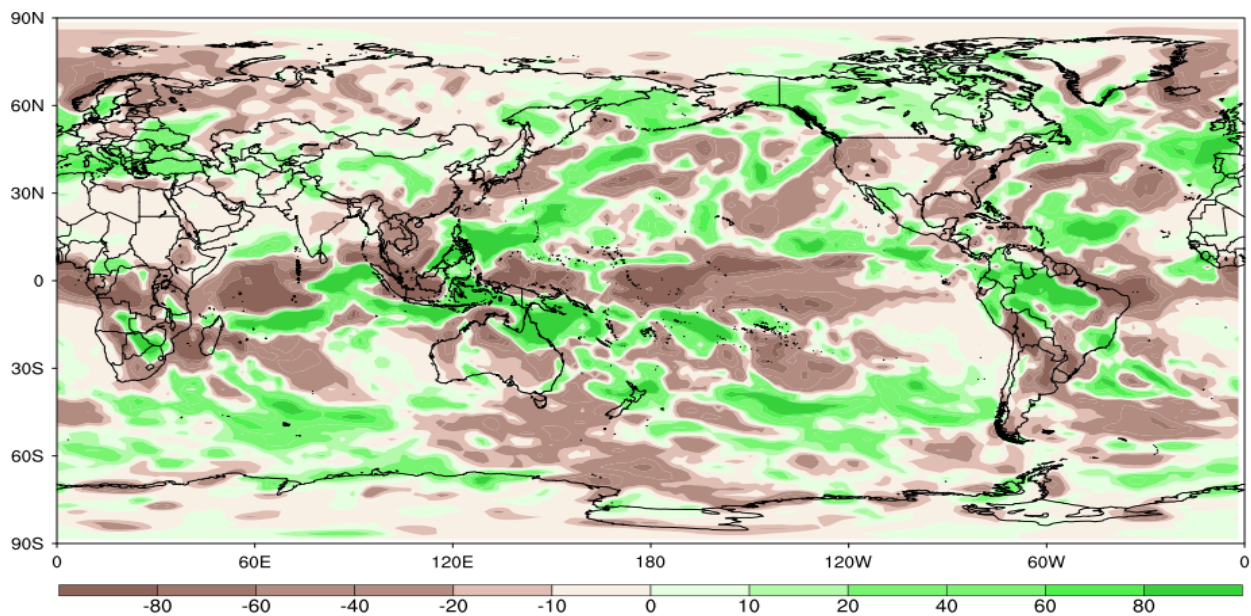


그림 a) ▶ 채색: (초록)월 누적 강수량

그림 b) ▶ 채색: (초록)평년보다 많은 강수량, (갈색)평년보다 적은 강수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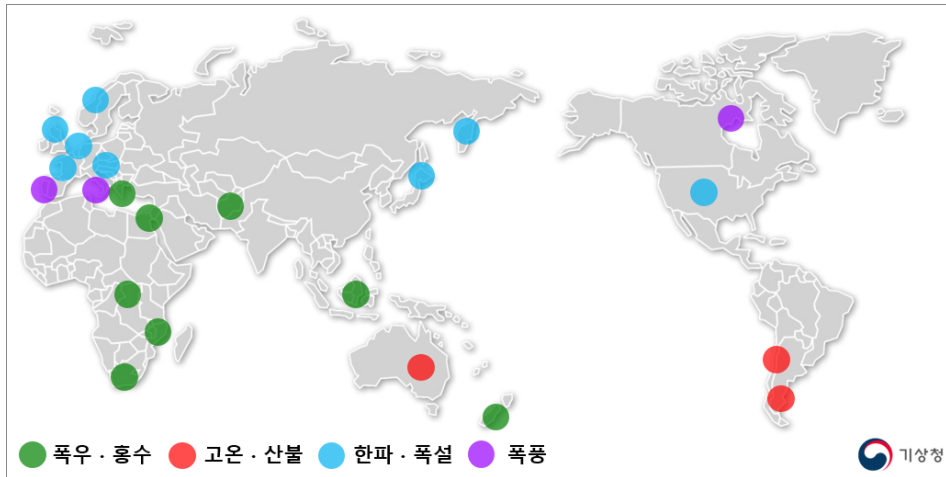
그림 b) 강수량 평년편차(mm): 2026년 1월 누적 강수량 - 평년(1991~2020년) 1월 누적 강수량

※ 자료출처: 미국 환경예측센터(NCEP,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) 재분석자료

※ 전 세계 평균 누적 강수량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1월 전 세계 기상재해



● 폭우·홍수

- (아프가니스탄) 폭우와 폭설로 인한 돌발 홍수로 최소 17명 사망(1.1.), 중·북부서 사흘간 폭설·폭우로 61명 사망, 110명 부상(1.22~1.24.)
- (인도네시아) 술라웨시섬 홍수·산사태로 최소 14명 사망·4명 실종(1.6.), 자바섬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, 70명 실종(1.24~2.1.)
- (이스라엘) 가자지구에서 폭우, 최소 6명 사망, 피란민 텐트 수백 동 침수(1.13.)
- (남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, 모잠비크 등) 폭우로 인한 홍수, 남아프리카공화국 19명 사망, 모잠비크 103명 사망(1.13.)
- (뉴질랜드)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, 집과 야영장을 덮쳐 최소 2명 사망(1.22.)
- (그리스)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, 2명 사망(1.22.)
- (콩고민주공화국) 동부 루바야광산 지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, 최소 200명 사망(1.28.)

● 고온·산불

- (아르헨티나) 체감온도 42도 육박, 총3만 가구 정전 피해(12.30.)
- (칠레) 산티아고 낮최고기온 35°C 안팎, 중부 중심 폭염특보(12.31), 중남부 기록적 폭염 속 산불 발생, 19명 사망, 약 200km² 소실(1.20.)
- (호주) 남동부 40도 넘는 폭염, '재앙(catastrophic)' 단계 산불 확산, 1명 사망(1.11.), 50도 육박한 극한 폭염으로 대형 산불 발생,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 기록 경신(1.29.)

● 한파·폭설

- (프랑스·보스니아·네덜란드·영국) 북극발 유럽 한파와 폭설로 항공편 취소, 도로와 철도 교통 마비, 일부 학교 휴교, 프랑스 5명 사망, 보스니아 1명 사망(1.6.)
- (핀란드) 북부 킬레 공항에 영하 37도 한파로 항공편 취소(1.13.)
- (러시아) 캄차카반도에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인해 최소 2명 사망, 평균 적설량 170cm, 일부 지역 250cm 기록(1.20.)
- (미국) 겨울 폭풍, 폭설로 인한 차량 100대 연쇄추돌 발생, 수십 명 부상(1.20.), 초강력 눈폭풍과 한파로 인해 113명 사망, 수천여 가구 정전, 항공편 결항(1.29.)
- (일본) 홋카이도에 112cm 눈, 교통 마비, 공항에 7천 명 고립(1.27.)

● 폭풍

- (캐나다) 동부에 눈폭풍 영향으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45cm 적설, 역대 최고 기록(1.27.)
- (이탈리아) 남부 시칠리아에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, 지반이 무너지며 4km 넘는 절벽 생성, 주택 수십 채 파손(1.29.)
- (포르투갈·스페인) 폭풍 '크리스틴' 강타, 포르투갈 3명, 스페인 1명 사망, 80만 명 이상 정전 피해(1.29.)

※ 우리나라와 전세계 기상이슈에 대한 정보를 매주 주간기후이슈를 통하여 기후정보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<http://www.climate.go.kr/home/bbs/list.php?code=27&bname=scrap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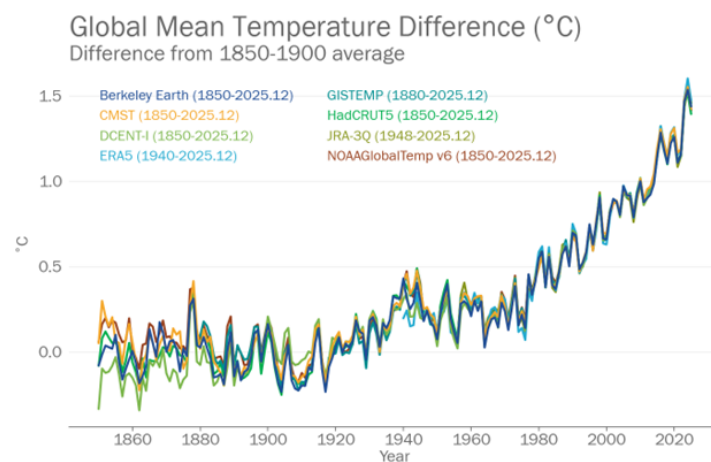
기후 이슈

- 2025년은 역대 2~3번째로 따뜻한 해 -

전 지구 평균기온 산업화 이전 대비 1.44(±0.13)°C 상승

WMO(세계기상기구)가 1월 14일 발표한 '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'에 따르면, 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(1850~1900년) 대비 1.44(±0.13)°C 상승하였고 8개의 국제 데이터 세트* 중 2개는 역대 2위, 6개는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. 2015년부터 2025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의 해이며 그중 2023년~2025년은 역대 1~3위를 기록하였습니다. 라니냐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.

* 국제 데이터 세트: 유럽 중기예보센터(ECMWF)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(ERA5), 일본 기상청(JRA-3Q), 미국 항공우주국(NASA)(GISTEMP v4), 미국 국립해양대기청(NOAA GlobalTemp v6), 영국 기상청과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기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HadCRUT.5.1.0.0, Berkeley Earth(미국), 동적 일관성 양상률 기온(DCENT/영국, 미국), 중국 통합 지표면 기온 데이터세트(CM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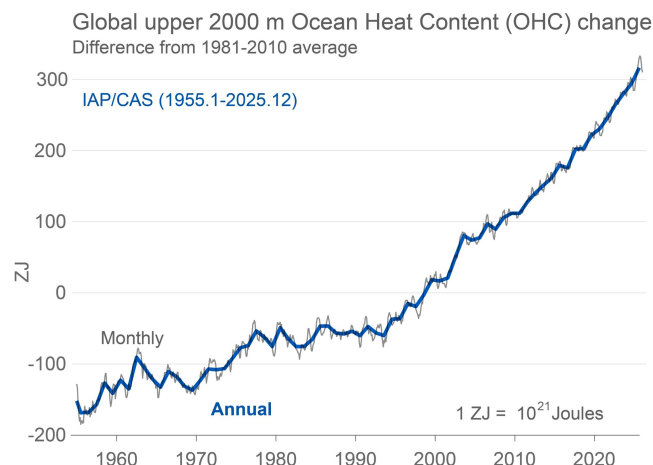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8개 국제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전 지구 연평균기온 편차(1950~1900년 평균 대비)

*출처: 세계기상기구(WMO)

2025년 해양온난화의 지속

2025년 해양 수온은 기후시스템 내 장기간에 걸친 열 축적을 반영하여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(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논문). 2025년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은 2024년 대비 23±8ZJ(제타줄) 증가하였고 이는 2024년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(중국과학원 Lijing Cheng 연구팀). 전 지구 해양의 약 33%는 1958~2025년 기록 중 상위 3위 이내, 약 57%(열대대서양, 남대서양, 지중해, 북인도양, 남극해)는 상위 5위 이내 기록하였고 해양 온난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. 2025년 전 지구 해수면 온도는 1981년~2010년 대비 0.49°C 상승하며 역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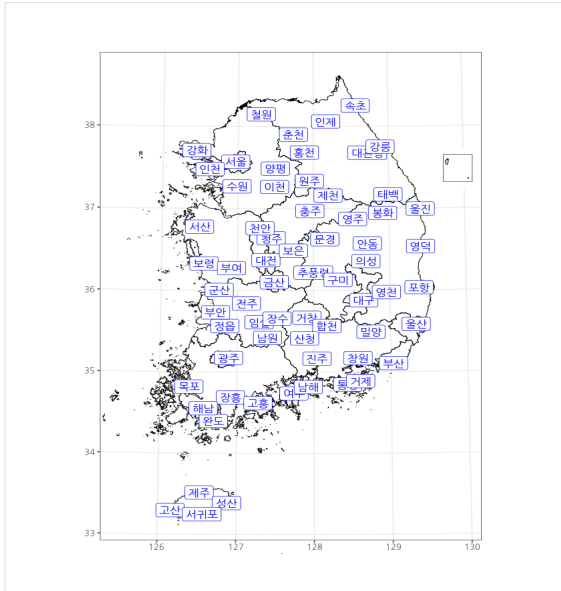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전 지구 수심 2000m 이내 해양 열용량 편차(1981~2010년 평균 대비)

*출처: 세계기상기구(WMO)



지점 위치정보



▶지점 위치정보

- 전국 62개 + 제주 4개 지점 위치

※이상고온(저온) 발생일수: 이상고온(저온)은 평년(1991~2020년)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(낮은) 극한현상으로 일최저·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을 초과(10퍼센타일 미만)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

※ 강수일수: 일강수량이 0.1mm 이상인 날의 일수

※ 눈일수: 눈, 소낙눈, 가루눈, 눈보라, 소낙성진눈깨비, 진눈깨비, 싸락눈 중 어느 하나가 관측된 일수

1월 지점별 이상저온 일수 및 현상일수

지점명	이상저온 일수(일)		현상일수(일)		지점명	이상저온 일수(일)		현상일수(일)	
	최고기온	최저기온	강수일수	눈일수		최고기온	최저기온	강수일수	눈일수
속초	7	2	4	-	강화	5	2	3	-
철원	6	3	7	-	양평	2	0	6	-
대관령	4	2	3	-	이천	3	0	5	-
춘천	4	4	5	-	인제	5	0	9	-
강릉	5	2	4	3	홍천	4	0	6	-
서울	3	4	4	8	태백	4	2	7	-
인천	7	6	4	8	제천	4	0	8	-
원주	6	0	6	-	보은	3	1	6	-
수원	5	1	5	7	천안	4	1	5	-
충주	3	0	5	-	보령	2	4	4	-
서산	7	1	6	-	부여	3	1	4	-
울진	6	3	2	-	금산	4	0	5	-
청주	4	1	7	11	부안	2	0	7	-
대전	4	2	5	11	임실	3	0	5	-
추풍령	5	5	5	-	정읍	7	1	8	-
안동	5	2	2	-	남원	5	0	5	-
포항	6	2	0	1	장수	5	0	7	-
군산	4	7	4	-	장흥	5	5	3	-
대구	5	5	0	-	해남	6	6	4	-
전주	4	1	3	10	고흥	5	5	1	-
울산	7	5	0	3	봉화	5	3	5	-
창원	5	5	1	-	영주	5	1	3	-
광주	4	2	6	11	문경	5	2	4	-
부산	6	3	1	0	영덕	5	3	1	-
통영	4	5	0	-	의성	5	0	3	-
목포	7	2	7	11	구미	4	1	1	-
여수	4	5	0	2	영천	5	2	0	-
완도	4	7	3	-	거창	5	1	3	-
제주	4	2	7	-	합천	6	0	1	-
고산	7	2	7	-	밀양	5	5	0	-
성산	6	4	7	-	산청	5	2	0	-
서귀포	3	3	4	-	거제	7	2	1	-
진주	5	5	0	-	남해	5	2	0	-